

“지역주부운동, 운동가 중심에서 벗어난다”

살구회, 주부강사 발굴 등 지역육구 충족 통한 지역자원 활용이 비결

93.9.17

구로, 독산, 시흥지역의 <살기 좋은 구로지역 만들기(약칭 살구회)>가 지역주부운동의 바람직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살구회는 91년 10월 어느 지역여성운동처럼 주부교육을 매개로 출발했지만 지역 출신의 주부교사를 발굴하는 등 일반주부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 성공함으로써 소수의 엘리트여성이나 운동가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살구회를 이끄는 운영진은 95%이상이 지역주부들로 주부들이 직접 나서 주부대학의 강사로 참여하고 독서모임, 무공해비누 공급을 통한 환경운동, 지역봉사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 살구회의 특징은 6~70명의 ‘주부활동가’들 1백%가 살구회와 첫 인연을 맺게 되는 여성교실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살구회의 순수하고 좋은 뜻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적극 동참’했다는 점.

11월경 전국에 걸친 지역여성운동의 현황사례집 발간을 위해 뛰고 있는 한국여성개발



▲살구회원들이 인근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공해 비누만들기 시범을 보여주고 비누를 무료로 나눠 쓰는 함께하는 환경운동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원 강정숙 책임연구원(자원개발실)은 “지역여성의 요구를 정확히 읽어내 이를 충족시키고 지역자원을 최대 활용한 방식이 크게 어필했던 것 같다”며 나름대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살구회는 이 지역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김주숙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가 지역특성을 잘 파악, 저학력층 여성의 잠재요구를 겨냥한 기초교양학습에 중점을 두고 인근 성당여성인도회와 아파트부녀회, 동사무소, 구청 등과의 협력관계 맺기가 좋은 결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2년 전 살구회를 알게 됐다

가 주부대학에 참여, 이후 영어강사로도 활동중인 살구회 임송자 부회장(39. 시흥1동 럭키아파트)은 “김 교수의 사심없는 활동에 마음이 끌렸다. 지역의 각종 자원과 인력을 아끼고 활용한 것이 주부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주지 않아 호응이 컸다”고 말한다.

현재 살구회 여성교실의 강사진은 모두 수강생중에서 발굴됐고 주민대상 도서관운영은 구로도서관에서 매달 책을 대여, 주민들이 자녀들을 동반하고 자연스레 살구회와 접촉하는 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또 살구회를 실제 움직이는 운영위원 15명

도 거의 고졸출신 주부들로 교육파트와 환경파트, 지역활동파트 등의 활동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 타지역 주부운동에 좋은 사례로 활성화되고 있다.

김주숙 회장은 “최근에 활발해지는 지역여성운동이 90년 들어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잘못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80년대 반독재투쟁이 주류를 이루면서 70년초 막 씨앗을 뿌렸던 지역공동체운동의 맥이 끊겼기 때문”이라며 다시 이 맥을 살려내는 게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김 교수는 69년 현대의 지역사회학교후원회나 71년 이화여대에서 마포, 화곡동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교육 등을 귀중한 사례로 꼽는다.

이런 맥을 잇는 주부활동가 위주의 살구회 회원들은 “앞으로 1년간 연구차 스웨덴으로 떠난 김주숙 회장의 자리를 메꿀 운영위의 활동력과 조직력을 기대해도 좋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